

뉴스 텍스트에 나타난 명사형 어휘 연구*

- 명사화 어미 {-기}를 중심으로

신현숙 · 박건숙**

< 次 例 >

- I. 연구 개요
- II. 뉴스 텍스트에 나타난 명사형 어휘
- III. 명사형 어휘의 유형
- IV. 명사형 어휘의 의미
- V. 분석 결과

I. 연구 개요

이 연구의 목적은 뉴스 텍스트¹⁾에 나타난 명사형 어휘 중에서 명사화 어미 {-기}를 대상으로 그 유형과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뉴스 텍스트는 방송 보도문의 대표적 텍스트로 박갑수(1996)와 민현식(1999)에 의하면 방송 언어는 형식면에서는 표준어와 자연스러운 구어체 표현, 쉽고 논리적인 어법을 사용해야 하고, 내용면에서는 객관성과 정확성, 사실성 등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뉴스 보도문조차 이러한 조건에 맞

* 교내 연구비(상명대학교) 수혜 논문.

** 상명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hssh@smu.ac.kr)

상명대학교 외래 교수(sook@kdipl.com)

1) 이 연구에서는 2006년 한 해 동안 방송된 KBS 9시 뉴스의 텍스트 전문을 대상으로 명사형 어휘를 추출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히 언어 형식면에서 일상적인 언어가 아닌 보도문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많은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임태섭(2001)은 일상적이지 않은 언어로 어려운 한자말과 함께 복잡한 명사화를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명사화는 뉴스의 비일상적 언어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쉽고 논리적인 어법에는 어긋나는 표현이지만, 명사화 표현은 뉴스를 간결하고 축약적으로 전달하는데 효과적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 뉴스 텍스트를 살펴보면 단순히 구문의 명사형이 아니라 완전한 명사로 쓰이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동사의 명사형이 그 행위나 과정을 지시하는 하나의 명사로 굳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뉴스 텍스트에 나타난 명사형 어휘의 유형을 살펴보고, 이것이 문장 내에서 어떤 맥락적 의미²⁾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뉴스 텍스트에서 명사형 어휘를 통해서 사회적 현상과 경향을 어떻게 어휘화하고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한다.

II. 뉴스 텍스트에 나타난 명사형 어휘

명사형 혹은 명사화에 관한 의미 연구는 채완(1979), 심재기(1980), 홍종선(1983)을 비롯하여 최근의 왕문용·민현식(1993), 정주리(1995) 등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앞선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명사형 전성어미 {-기}³⁾

2) 의미 분석과 관련지을 수 있는 연구로는 Aitchison(1987), Miller(1991), 신현숙(1991), Frawley(1992), Shin(1993), Saeed(1997), Shin & Lee (1998), 신현숙·박건숙(2001) 등을 들 수 있다.

3) 명사형 어미에 대한 많은 통시적인 연구를 보면 15-6세기에는 {-고}의 사용이 절대적이었다가 17세기 무렵부터 {-기}의 분포가 넓어졌으며 현대에는 {-기}의 사용이 절대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뉴스 텍스트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에 비해서 {-기}

의 의미에 대해서 [-결정성] 혹은 [-기정성]과 [행위성]⁴⁾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 특성은 우리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나 사건을 구체화하고 일반화하려는 뉴스 텍스트를 통해서 좀더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ㄱ. KS 5차전, 끝내기냐? 반격이나?
 ㄴ. '최고 몸짱' 금빛 근육 만들기
 ㄷ. 인터넷 '파나르기' 유행
 ㄹ. 경찰, 끼워 넣기 조화 '들통'

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뉴스 텍스트에서는 명사화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나 사건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1 ㄱ)의 {끝내기}⁵⁾는 '승부를 끝내는 것'의 의미를 {끝내기}라는 하나의 명사화된 단어로 표현하고 있으며, (1 ㄹ)에서는 '끼워 넣어서 하는 조화'라는 의미를 '끼워 넣기 조화'로 표현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동사나 구문의 명사화는 일상적인 언어 표현은 아니지만, 뉴스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압축적이고 축약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러나 뉴스 텍스트에 나타나는 명사화는 단순히 압축적 혹은 축약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의 현상을 명사화하고 구체화하여 이를 어휘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훨씬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다.

4) 명사형 전성어미 {-기}의 의미에 대해서 채완(1979)은 '계속적, 반복적, 일반화된 개념, 기대상'으로, 심재기(1980)에서는 [-실재성], [-결정성]으로 기술하고 있다. 특히 {-기}의 의미 자질 [-결정성]은 왕문용·민현식(1993)에서도 [-기정성]으로, 정주리(1995)에서는 미완료성, 행위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5) 이 연구에서는 언어 형식을 지시하기 위해 { }를 사용한다.

- (2) ㄱ. 케도 이사회도 북한 경수로 사업을 끝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짓지도 않는 현장에 인력이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 ㄴ. 앞으로는 선거사범의 확정 판결을 6달 안에 끝내기로 했습니다.
- ㄷ. 이달 말까지는 사고의 원인 규명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 (3) ㄱ. “끝내기 홈런을 쳐서 기분 좋습니다.”
- ㄴ. “야구하면서 끝내기 안타나 끝내기 홈런 친 적이 없었는데 처음 쳐서 너무 기쁩니다.”

위의 예를 살펴보면, (2)는 {끝내기}가 구문의 명사화로 쓰인 것으로, (2 ㄱ)에서는 ‘케도 이사회도 북한 경수로 사업을 끝내다’라는 문장이 명사절로 쓰이고 있으며 (2 ㄴ)과 (2 ㄷ)에서도 각각 ‘선거사범의 확정 판결을 6달 안에 끝내다’와 ‘사고의 원인 규명을 끝내다’가 명사절로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3)에서는 {끝내기}가 명사화가 아닌 명사로 쓰이고 있는데, 이는 ‘끝내기 홈런’이나 ‘끝내기 안타’와 같은 복합 명사의 형식을 통해서 좀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처럼 반복적인 행위를 (-기)를 통해 하나의 일반화된 현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이러한 행위나 사건이 우리 사회나 문화 속에서 특정한 의미나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데, 이는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4) ㄱ. 최연희 의원이 버티기를 공개 천명함으로써 성추행 파문은 법적 공방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 ㄴ. 시도 지사 선거 판세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열세 반전, 한나라당은 대세 굳히기 총력전입니다.

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4 ㄱ)의 {버티기}는 동사 {버티다}의 명사형으로 ‘어려운 일이나 외부의 압력을 참고 견디다’ 혹은 ‘어떤 대상이 주

변 상황에 움쩍 않고 든든히 자리잡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여기에서는 뒤에 나오는 '성추행 파문'이라는 문체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이나 사과 없이 지금의 태도나 입장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곧 '파문'을 받아들이지 않는 의원의 행동을 {버티기}라는 표현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4나)의 {굳히기} 역시 '흔들리거나 바뀌지 아니할 만큼 힘이나 뜻이 강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는 {굳히기}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떤 정당이 유리한 위치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는 '열린우리당은 열세 반전', '한나라당은 대세 굳히기'라는 대조법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는 {버티기}나 {굳히기}가 단순히 동사의 명사화라는 언어 형식의 측면에서만 변화한 것이 아니라, 명사로 굳어지면서 그 의미도 변화한 것을 보여준다. 곧 {버티기}나 {굳히기}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나 '흔들리거나 바뀌지 않게 강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는 하나의 일반적인 현상 혹은 경향을 나타내는 명사로 쓰이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명사형 어휘가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이것이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분석하도록 한다.

III. 명사형 어휘의 유형

명사형 어휘는 동사의 명사형과 명사와 동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명사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부사와 동사가 결합한 명사형도 나타나지만 이는 그 예가 상당히 적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동사의 명사형과 명사와 동사가 결합한 명사형을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동사}의 명사형

동사의 명사형은 단일이어가 명사형으로 나타나는 경우와 동사가 겹쳐 나오는 합성동사의 명사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단일이어 명사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5) ㄱ. 드라마 같은 끝내기 역전 홈런포였습니다.
 ㄴ. 열린우리당의 흔들기에 틈을 내주지 않겠다는 태세입니다.
 ㄷ. 곧바로 펼쳐진 팽팽한 시소게임, 그러나 오리온스는 끝내 뒤집기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ㄹ. 굳히기에 나선 정동영 후보와 뒤집기를 시도하는 김근태 후보는 초반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끝내기}와 {흔들기}, {뒤집기}, {굳히기}는 모두 {끝내다}, {흔들다}, {뒤집다}, {굳히다}의 명사형이다. 이러한 명사형은 체언의 성격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 (5 ㄱ)의 {끝내기}는 ‘드라마 같은’, (5 ㄴ)의 {흔들기}는 ‘열린우리당의’의 수식을 받아 체언의 성격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또한 (5 ㄷ)에서도 ‘뒤집기를 허용하다’라고 하여 ‘허용하다’의 목적어로 쓰이고 있으며 (5 ㄹ)에서는 ‘굳히기에 나서다’와 ‘뒤집기를 시도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구문 내에서 자연스럽게 체언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동사가 겹쳐서 나오는, 이른바 합성동사의 명사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6) ㄱ. 몰아주기식 연구비 지원도 문제였습니다.
 ㄴ. 이번 투표 결과는 어 총장의 밀어붙이기식 학교 운영 방식에 대

한 반발이 드러난 결과라는 견해도 많습니다.

- ㉔. 8회에도 좌전 안타를 때려 방망이를 조율한 이승엽은 다음 타석, 기어이 홈런을 때려내며 특유의 몰아치기 타법을 선보였습니다.

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몰아주기}, {밀어붙이기}, {몰아치기}는 모두 {몰아주다}, {밀어붙이다}, {몰아치다}의 명사형이다. (6 ㄱ, ㄴ)의 예를 보면, {몰아주기식}이나 {밀어붙이기식}으로 파생 접사가 결합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식}은 명사 뒤에 붙는 파생 접사로, {몰아주기}와 {밀어붙이기}가 하나의 명사로 쓰인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다음 절에서는 명사와 동사가 결합하여 명사형으로 사용하는 예를 살펴해보도록 한다.

2. {명사+동사}의 명사형

명사와 동사가 결합한 구문의 명사형은 크게 ‘목적어+서술어’, ‘부사어+서술어’의 구성으로 나눌 수 있다.⁶⁾ 대부분의 예가 ‘목적어+서술어’의 형식이므로 여기에서는 목적어와 서술어가 결합한 구문을 먼저 살펴해보도록 한다. 구체적인 예⁷⁾는 다음과 같다.

- (7) ㄱ.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물타기이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6) ‘주어+서술어’ 구문의 명사형은 {표출림}과 같은 예를 통해서 볼 수 있다. {표출림}은 ‘표가 쓸리다’에서 주격 조사가 생략된 형식인데, 이러한 ‘주어+서술어’ 구문의 명사형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기}를 연구 대상으로 삼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

7) 예문의 띄어쓰기는 KBS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텍스트의 원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 ㄴ. 대표팀 전술 비공개...몸 만들기 돌입
- ㄷ. 검찰, 줄기세포 '말 맞추기' 정황 포착
- ㄹ. 은행, 돈놀이로 배불리기
- ㅁ. 이런 값 부풀리기의 피해자는 일반 소비자들인 만큼 아파트 가격 담합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입장입니다.
- ㅂ. 이렇게 도를 넘는 아파트 값 올리기 행태는 최근 인터넷에서 아파트 동호회가 활성화 되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 ㅅ. 일단 당을 새로 만들자는 신당 창당론이 우세한 가운데 친 노대통령 그룹을 중심으로 한 당 지키기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 ㅇ. 대학, 성적 부풀리기 차단 환영
- ㅈ. "흔들기 위한 먼지떨기식 문제제기 안된다."

(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각 명사형 어휘는 '목적어+서술어'의 구조로 된 것으로 목적격 조사가 생략되어 나타난다. 예를 들어 (7 ㄱ)의 {물타기}와 {꼬리 자르기}는 '물을 타다'와 '꼬리를 자르다'에서 목적격 조사가 생략되어 명사형으로 이루어진 형식이다. 마찬가지로 (7 ㄴ-ㅇ)의 예는 각각 '몸을 만들다', '말을 맞추다', '배를 불리다', '값을 부풀리다', '값을 올리다', '당을 지키다', '성적을 부풀리다', '먼지를 털다'의 구문에서 목적격 조사를 생략하고 명사형을 만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목적어와 서술어의 결합 구문에서 명사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빈도가 높은 어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8) ㄱ. {값}+(V+(-기)): 값 부풀리기, 값 올리기
- 1. {말}+(V+(-기)): 말 맞추기, 말 바꾸기
- ㄷ. {줄}+(V+(-기)): 줄서기, 줄세우기, 줄타기

:

위의 (8)에서 제시한 예는 명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동사가 결합하는 것으로 {값}이나 {말}, {줄} 등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용언을 중심으로 다양한 명사가 결합한 형식도 나타나는데,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9) ㄱ. {N}+{굳히기}: 대세 굳히기, 2위 굳히기
- 나. {N}+{만들기}: 몸 만들기, 근육 만들기, 체력 만들기
- 다. {N}+{부풀리기}: 값 부풀리기, 내신 부풀리기, 성적 부풀리기, 의혹 부풀리기
- 르. {N}+{살리기}: 예술 분야 살리기, 불씨 살리기, 아이들 살리기, 경제 살리기
- ㅁ. {N}+{쌓기}: 경력 쌓기, 승수 쌓기, 점수 쌓기, 명분 쌓기
- ㅂ. {N}+{죽이기}: 민주당 죽이기, 지방 죽이기, 야당인사 죽이기
- ㅅ. {N}+{흔들기}: 미국 흔들기, 판 흔들기

위의 예를 보면, 동사의 명사형이 하나의 명사로 굳어져 다른 명사와 합성 명사로 쓰이고 있는데 이는 명사형 어휘가 완전히 명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다음으로 ‘부사어+동사’의 구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그 예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10) ㄱ. 진선유가 보여준 막판 뒤집기 역시 한국 쇼트트랙의 저력을 보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 나. 전자랜드는 이후 외국인 선수 프렌드의 슛 2개가 모두 림을 가르면서 두 점차 마지막 뒤집기에 성공했습니다.

위의 예문 (10)은 ‘부사어+서술어’의 구성인 ‘막판에 뒤집다’와 ‘마지막

에 뒤집다'가 명사형으로 제시된 것으로, 앞에서 살펴본 '목적어+서술어'의 형식보다는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마지막으로 부사와 용언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명사형이 있는데, 이것은 그 수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1) ㄱ. 감독 경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속에서도, 홀로서기에 나선 핼 베어백 코치의 지도력은 이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ㄴ. 변액보험 수익률 뺑튀기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홀로서기}와 {뺑튀기}는 각각 '홀로 서다'와 '뺑 튀기다'가 결합한 명사형이다. 물론 {뺑튀기}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만, 이러한 형식은 뉴스 텍스트에서 명사형 표현이 상당히 다양한 통사구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명사형 어휘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IV. 명사형 어휘의 의미

이 장에서는 명사형 어휘의 의미를 문장 속에서 분석하는데, 각 명사형 어휘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전달하는 보도문의 관점은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나 사건 등을 명사형 어휘로 기술하는 것은, 그러한 행위가 하나의 현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며 나아가 뉴스라는 매체를 통해서 공론화시킬 만한

의미 혹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명사형 어휘의 의미가 단어 자체의 기본 의미에서 확장되어 보도문의 관점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

원칙적으로 뉴스와 같은 보도문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지만 실제 보도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관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⁸⁾ 이는 명사형 어휘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뉴스 보도문의 특성상 사건이나 현상, 대상에 대한 의미를 도덕적 가치나 평가를 기반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곧 한국어 사용자가 특정 사건이나 현상,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지, 더 나아가 도덕적 기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뉴스 텍스트에서 함께 제시하고 있다.⁹⁾ 텔레비전 뉴스에 대한 기존의 언어학적 연구¹⁰⁾에서도 보도자의 긍정 혹은 부정적 태도를, 보도문의 관점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

8) 임태섭(2001: 122-125)에서는 보도언어의 문제점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분류하면서 국민의 사고방식을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적합하지 않은 보도언어의 특성으로 권위주의 언어, 차별의 언어, 특정집단의 관점을 옹호하는 표현, 과장된 표현과 극단적 표현을 들고 있다. 한편 이홍식(2005: 175-181)에서는 뉴스 기사의 바람직하지 못한 언어 특성으로 '선정적 표현', '주관적 표현', '과장된 표현'과 함께 '부정확한 표현'을 들고 있다.

9) 김정자(2001)와 임태섭(2001), 권순희(2002), 김병홍(2004), 이홍식(2005) 등에서 이러한 텔레비전 뉴스에 나타난 보도자의 태도와 어휘 선택 등을 다양한 측면에서 기술하고 있다.

10) 김정자(2001: 99-103)에서는 텔레비전 뉴스 기사를 언어학적으로 분석하면서, 언어 요소의 선택을 화자 곧 보도자의 관점이나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곧 '긍정적 가치와 부정적 가치를 지닌 낱말이라든지 '호오(好惡)'의 뜻을 지닌 낱말들이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편 권순희(2002: 341-342)에서는 뉴스 텍스트의 미시 구조를 어휘 선택에 드러난 주관성을 비롯한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면서, 이러한 텔레비전 뉴스 문장의 특징과 관점을 아는 것은 텔레비전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김병홍(2004: 170-173)에서는 텔레비전 뉴스 텍스트의 구조를 [긍정]과 [부정]을 중심으로 하여 뉴스의 의도성을 분석하였다.

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뉴스 텍스트에 나타난 명사형 어휘의 의미를 그것이 쓰인 문장을 중심으로,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이와 함께 도덕적 의미와 확대 및 과장의 의미를 분석한다.¹¹⁾

1. 긍정적 의미

이 절에서는 명사형 어휘 중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것을 먼저 살펴보는 데, 먼저 동사의 명사형 중에서 빈도가 높은 {끝내기}¹²⁾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 가. “끝내기 홈런을 쳐서 기분 좋습니다.”

나. “야구하면서 끝내기 안타나 끝내기 홈런 친 적이 없었는데 처음 쳐서 너무 기쁩니다.”

다. 김민재는 9회말 깊은 안타성 타구를 잡아 던진 끝내기 수비를 선보였습니다.

르. LG는 9회말 끝내기 밀어내기로 롯데를 3대 2로 이겼습니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끝내기}는 각각 {홈런}, {수순}, {수비}, {안타}를 수식하는 성분으로 쓰이고 있다. 곧 사실상 ‘끝내는 홈런’, ‘끝내는 수순’, ‘끝내는 수비’, ‘끝내는 안타’의 의미를 갖는 구문이 ‘끝내기 홈런’과

11) 동사의 명사형 중에서 특별히 긍정 혹은 부정적인 의미나 도덕적인 관점이 제시되지 않는 단어도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서는 따로 기술하지 않고 분석 결과 <표 2>에서 중립적인 의미로 그 어휘 항목만을 제시하도록 한다.

12) 표준국어대사전(1999)에 의하면 {끝내다}는 {끝나다}의 사동형으로, ‘일이 다 이루어지게 하다, 혹은 ‘시간이나 공간에서 이루어져 있던 것이 다 되어 없어지게 하다’의 뜻을 갖는다.

같은 합성 명사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끝내기}는 기본 의미인 [마치기]¹³⁾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단순히 [사건을 종료시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승부를 결정 짓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확장된 의미를 함께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3) {끝내기} [마치기] → [결정짓기]

한편 {끝내기}는 그 문맥을 살펴보면 단순히 사건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상태로 결정짓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¹⁴⁾, 앞의 예를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 ㄱ. {끝내기} 홈런을 쳐서 기분 좋습니다.

나. {끝내기} 안타나 {끝내기} 홈런...처음 쳐서 너무 기쁩니다.

ㄷ. 멋진 {끝내기} 수비를 선보였습니다.

ㄹ. {끝내기} 밀어내기로...이겼습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끝내기 홈런'이나 '끝내기 수비' 등은 문맥상 '기분이 좋다', '기쁘다', '멋지다', '이기다'와 같은 긍정적인 의미들과 결합한다.¹⁵⁾ 이는 {끝내기}가 사건을 종료시키면서 결정짓는 것이지만 그것을 보도하는 시사적 관점은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13) 이 연구에서는 의미 정보를 지시하기 위해 []를 사용한다.

14) {끝내기}는 대체로 승자의 입장에서 기술되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15) Aitchison(1987)과 Miller(1991)에 의하면 단어의 결합 관계나 단어 연상을 통해 자극되는 의미는 머릿속 어휘망(lexicon)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곧 {끝내기} 역시 문맥 속에 함께 결합하는 단어를 통해 한국어 사용-자가 인지하는 {끝내기}의 의미 속성을 찾아낼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의미는 {만들기}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14) ㄱ. 아드보카트식 압박 축구의 바탕이 되는 강철 체력 만들기에 주력했습니다.
 ㄴ. '최고 몸짱' 금빛 근육 만들기
 ㄷ. 청년 실업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해법
 ㄹ. 진정한 노인 복지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

위의 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4 ㄱ, ㄴ)의 {강철 체력 만들기}와 {금빛 근육 만들기}에서 각각 {만들기}의 대상을 '강철 체력'과 '금빛 근육'으로 기술하여 힘이 있고 강한 느낌을 주는 긍정적인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14 ㄷ)과 (14 ㄹ)에서는 '좋은 일자리'와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 역시 '만들기'의 대상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14 ㄷ)에서는 '일자리 만들기'가 해법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만들기}가 해법 혹은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어떤 대상이나 환경, 조건 등을 만든다는 것은 '생산성'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생산성은 긍정적인 대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명사형 어휘 중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표현을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끝내기}와 {만들기}는 그 자체로 긍정이나 부정의 의미가 없는 어휘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뉴스 텍스트에 쓰이면서 긍정의 의미를 많이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부정적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형 어휘를 살펴본다.

2. 부정적 의미

이 절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예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15) 가. “단순히 퍼주기나 의 문제 아니라 운명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할 중요한 사안인 것이죠”
 나. “흔들기 위한 먼지털기식 문제제기 안된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퍼주기}와 {먼지털기}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퍼주기나 의 문제’나 ‘먼지털기식 문제제기(는) 안 된다’는 의미를 통해서 {퍼주기}나 {먼지털기}가 ‘문제’ 혹은 ‘안 되는 대상’ 등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부정 의미는 명사형으로 쓰인 관용 표현¹⁶⁾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16) 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좋다고 하니까, 50이든 백이든 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 상을 받기 위해 올며겨자먹기로 갖다 주죠”
 나. 그래도 올며겨자먹기식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승객들
 다. “올며겨자먹기로 좌석을 채워가면서 공연을 하는 경우도 있는 듯...”
 (17) 가. 일정은 온통 관광일색, 그것도 수박 겉핥기식이었습니다.
 나. 수박 겉핥기식으로 가는 부분 자체가 과연 미국의 도축장 문제나 위생조건이 지켜질 것인가 우려되고...

16) 홍중선(1983)에서는 {-음}과 {-기}의 관용적 용법을 비교하면서 {-기}는 ‘동작이나 상태에 대한 일반화된 인식을 나타내는 명사화’라고 기술하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울며 겨자먹기}나 {수박 겉핥기}는 널리 쓰이는 관용 표현이다. 이러한 표현은 한 단어처럼 굳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쓰이는 화용적 상황이나 문맥 역시 대체로 정형화되어 있다. 뉴스 텍스트에서 이러한 표현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기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16 ㄷ)에서처럼 ‘울며 겨자먹기’로 죄책을 채워가면서 공연을 하다’라는 문장만으로 ‘정당하지 못한’ 혹은 ‘비정상적인’, ‘손해를 감수한’ 등의 의미를 알 수 있으며,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는 (17 ㄱ)의 예도 마찬가지로 ‘관광이 수박 겉핥기식이다’라는 문장만으로 ‘관광’의 내용, 문제점, 시사관점 등을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용 표현은 {도마뱀 꼬리 자르기}나 {제식구 감싸기}, {제살 깎아먹기}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관용 표현을 통해서 한 번에 많은 의미와 정보를 함축적으로 전달한다.

이러한 예는 부정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도덕적 혹은 법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뉴스 텍스트에서는 도덕 혹은 법적 관점으로 평가하고 있는 명사형 어휘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살펴본다.

3. 도덕적 의미

뉴스 텍스트는 현상이나 사건에 대해서 가능한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한국어 사용자가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가치관을 내포하고 있으며, 나아가 도덕적·법적 기준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를 명사형 {버티기}¹⁷⁾를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8) ㄱ. 10명뿐인 아스널이 남은 시간을 버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ㄴ. 종이 박스로 밤을 지새 보지만 요즘 같은 날씨엔 버티기가 힘겹습니다.
 ㄷ. 단전과 단수, 음식물 반입 중단으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다고 털어놓습니다.
 ㄹ. 경쟁사들은 비슷한 기능의 제품을 최근 60달러 정도의 초저가로 수출하고 있어 가격 경쟁에서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버티기}는 힘든 상태나 상황을 견디는 것을 의미한다. 곧 (18 ㄱ)에서는 ‘남은 시간을 버티다’, (18 ㄴ)에서는 ‘요즘 같은 날씨를 버티다’, (18 ㄷ)에서는 ‘버티기 어렵다’, (18 ㄹ)에서는 ‘가격 경쟁에서 버티다’로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버티기}가 비교적 기본 의미로 쓰인 예도 있지만, 명사로 쓰인 예에서는 기본 의미를 바탕으로 좀더 확장된 의미를 갖는다.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9) ㄱ. 김홍수 씨는 모 부장 판사 등에게 금품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며 버티기로 일관했습니다.
 ㄴ. 버티기에 들어간 재건축 주민의 반발과 위헌 논란, 험난한 입법 과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ㄷ. 검찰의 에버랜드 편법 증여 수사가 삼성측의 버티기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ㄹ. 버티기와 편법도 예상되지만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7) 표준국어대사전(1999)에 의하면 {버티다}는 ‘어려운 일이나 외부의 압력을 참고 견디다’ 혹은 ‘굽히지 않고 맞서 견디어 내다’의 의미로, [견디다], [움직이지 않다] 등의 의미로 정리할 수 있다.

ㄱ.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오늘 당직자 회의에서 최연희 의원의 버티기를 지도부가 그냥 보고만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19)의 {버티기}는 (18)의 예와는 달리, {버티기}의 상황이나 조건 등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곧 (19 나)의 ‘버티기에 들어가다’나 (19 르)의 ‘버티기와 편법’과 같은 표현은 {버티기} 자체를 명사처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19 니)의 ‘삼성측의 버티기’나 (19 리)의 ‘최연희 의원의 버티기’에서는 관형형의 수식을 통해서 명사의 특징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위의 예에서는 ‘어려운 상황이나 외부의 압력’을 견딘다는 의미보다는, (19 기)에서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와 같은 ‘반응을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예문 (18)과 (19)에서, {버티기}와 호응하는 용언의 관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8)에서는 {버티기}가 ‘역부족이다, 힘겹다, 어렵다’와 함께 결합하여 나타나지만, (19)에서는 ‘일관하다, 들어가다’와 같이 일종의 ‘태도’나 ‘상태’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 {버티기} [견디기] → [무반응]

한편, 뉴스 텍스트에 나타난 {버티기}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9) 나. {버티기}는 재건축 주민의 반발과 위협
- ㄷ. 편법 중여 수사에 {버티기}
- 르. {버티기}와 편법

ㄱ. {버티기}를 보고만 있다고 비판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버티기}의 기본 행위 자체는 특별히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지만, 보도문의 관점에서 {버티기} 행위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곧 (19' ㄴ)과 같이 {버티기} 행위 자체를 '반발과 위협'으로 취급하기도 하고 (19' ㄷ)에서는 {버티기}를 '편법 증여(에 대한) 수사'라는 법적 조사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보고 있다. 마찬가지로 (19' ㄹ)에서는 {버티기}를 {편법}과 동일시하고 있으며, (19' ㄹ)에서는 이러한 {버티기}를 비판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곧 전체적으로 {버티기} 행위는 편법, 위법, 비판의 대상으로 취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버티기}에서 보듯이, 단지 그 행위나 상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넘어서서 도덕적 혹은 법적 기준에 따른 관점이 보도문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사회 현상을 현상 그 자체로 보지 않고 그것에 대한 사회적 맥락과 시사적 관점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합성 동사의 명사형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21) ㄱ. 인터넷 '피나르기' 유죄

ㄴ. 이같은 '무분별한 피나르기'는 인터넷 어디에서나 만연해 있습니다.

ㄷ. 후보에 대한 욕설이나 비방 글을 게시하는 것은 물론 댓글이나 피나르기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피나르기}는 {푸다}와 {나르다}가 결합한 '퍼서 나르다'의 합성 동사로, '떠서 다른 곳으로 옮기다'의 의미이다. {피나르다}는 대체로 구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에서 게시물이나 기타 다른 정보를 옮기는 것을 {피나르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일차적으로 의미 확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피나르기}라는 행동 혹은 사건은 특별히 그 자체가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의 예를 보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기술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1) ㄱ. {피나르기} 유죄

나. 부분별한 {피나르기}

다. 후보에 대한 욕설, 비방 글 게시, 댓글, {피나르기} 선거법 위반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피나르기}는 '유죄'나 '선거법 위반'과 같은 불법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부풀리기}를 중심으로 한 명사형 어휘에서도 이러한 의미를 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22) ㄱ. 이런 값 부풀리기의 피해자는 일반 소비자들인 만큼 아파트 가격 담합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입장입니다.

나. 건설사의 분양가 부풀리기가 계속되는 한 천정부지로 솟는 아파트 값을 잡기는 어렵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다. 일단 가격 부풀리기 등 잘못된 시장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일치합니다.

르. 실적 부풀리기를 사후에라도 걸러내지 못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 내신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선 시험문제의 인터넷 공개가 최선의 카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 대학, 성적 부풀리기 차단 환영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부풀리기}는 {값}이나 {분양가}, {가격}, {실적}, {내신}, {성적} 등과 결합하여 하나의 합성 명사처럼 제시되고 있다. {부풀리다}는 ‘과장하다’의 의미를 갖는 것인데, 이를 뉴스 텍스트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2) ㄱ. 값 부풀리기의 피해자, 아파트 가격 담합도 처벌
 ㄴ. 가격 부풀리기는 잘못된 시장 질서
 ㄷ. 실적 부풀리기를 사후에라도 걸러내지 못해 문제
 ㄹ. 내신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선
 ㅁ. 성적 부풀리기 차단

위에서 정리한 내용을 보면, {부풀리기}와 관련된 것은 (22) ㄱ)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 곧 ‘처벌 대상’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22) ㄴ)에서는 ‘잘못된 시장 질서’로 제시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으로 (22) ㄷ-ㄹ)에서는 모두 ‘걸러내거나 차단 혹은 막아야 하는 대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부풀리기} 행위가 부정적인 것이며 나아가 처벌이 가능한 위법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예는 {말}과 관련된 동사의 명사형에서도 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23) ㄱ. 검찰은 이들 네 사람이 말 맞추기를 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한꺼번에 불렀으며 말을 바꿀 것에 대비해 조사 과정을 모두 녹화한다고 밝혔습니다.
 ㄴ. 검찰은 특히 윤교수가 박종혁·김선중 연구원 등과 e-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말 맞추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ㄷ. 증거 인멸을 위한 의도적인 말 맞추기가 아니었는지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리. 분양원가 공개 불가 방침에서 공개로 바뀌고 쾌적한 신도시를 위해 용적률을 낮춘다고 했다가 다시 높이는 등 잦은 정책 변경과 말 바꾸기로 혼란을 키웠습니다.

위의 (23)을 살펴보면, 먼저 {말 맞추기}는 단순히 말의 내용을 맞추는 것을 넘어서서 '같은 말을 하도록 미리 알리바이를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말 바꾸기}는 '일관적이지 않은 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는 곧바로 부정적인 시사 의미로 나타나는데, (23 ㄱ)에서는 '말 맞추기를 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라고 해서 {말 맞추기}는 제지해야 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3 ㄴ, ㄷ)에서는 {말 맞추기}를 '의혹, 의심'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증거 인멸을 위한'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 맞추기'의 위법성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23 ㄹ)에서는 {말 바꾸기}를 '혼란을 키우는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말 맞추기}나 {말 바꾸기}와 같은 행위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도덕적 혹은 법적인 의미로 기술될 수 있는 표현을 살펴보았다. 뉴스 텍스트에서는 긍정 의미보다는 부정 의미를 갖는 현상이나 사건·대상이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정 의미는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수 있거나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도 기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극대화된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형 어휘 항목을 살펴본다.

4. 극대화된 의미¹⁸⁾

앞의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도문에 나타난 동사의 명사형은 비유,

18) 권순희(2002)에서는 이러한 극대화 혹은 과장된 표현을 텔레비전 뉴스의 영상과 어휘 선택에서 모두 지적하고 있다.

확장 표현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부풀리기}와 같은 과장 표현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과장을 넘어서서 사건이나 대상을 최대한 강조하기 위해서 극대화된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살리기}와 {죽이기}이다.

먼저 {살리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4) ㄱ. 고른 예술 분야 살리기가 숙제입니다.

ㄴ. 토론회의 주요 관심사는 역시 경제 살리기였습니다.

ㄷ. 한편 전교조와 참교육 학부모회 등은 스승의 날 행사 대신 서울 흥사단 강당에서 '아이들 살리기 운동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ㄹ. 대북 정책, 대화 '불씨 살리기'

(2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살리다}는 죽어가는 것을 살아나게 하는 것으로, 이러한 표현은 {살리기}의 대상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대조적으로 강조 혹은 과장하기 위해서 주로 쓰인다. 예를 들어, (24 ㄱ, ㄴ)의 {예술 분야 살리기}와 {경제 살리기}는 각각 '예술 분야 활성화'나 '경제 활성화' 등으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의도적으로 {살리기}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24 ㄷ, ㄹ)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이들 살리기}와 {불씨 살리기}라는 표현을 통해서 기존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대북 정책에서의 대화'가 문제가 있거나 침체되어 있었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살리기}와는 대조적으로 쓰인 {죽이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5) ㄱ. 어제 2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한 화갑 대표는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에 대한 판결은 민주당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 ㄴ. 대수도 만들기는 지방 죽이기라며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 ㄷ. “각본에 따라서 야당인사 죽이기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ㄹ. “총 자본이 저희 화물연대 죽이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수출입 물동량의 관문이 부산에서 전 조합원이 모여서 총파업을 전개하기로..”

위에서 제시한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죽이기}는 이른바 ‘약화시키기’나 ‘억압하기’ 등의 의미로 쓸 수 있는 구문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죽이기}를 통해서 훨씬 강도 높게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곧 (25 ㄱ)의 {민주당 죽이기}나 (25 ㄴ)의 {지방 죽이기}는 각각 ‘민주당 약화시키기’나 ‘지방 약화시키기’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도 좀더 자극적이고 과장된 {죽이기}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25 ㄷ, ㄹ)에서도 ‘야당인사 억압하기’나 ‘화물연대 제지’ 혹은 ‘화물연대 억압’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죽이기}라는 표현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극대화해서 쓰고 있다. 이는 상대방의 ‘억압 행위’를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행위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억압당하는 상황’이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초읽기}와 같이 급박한 상황이나 상태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도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26) ㄱ. 전지훈련이 막바지로 향하며, 냉혹한 주전 경쟁도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 ㄴ. 영화 왕의 남자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 ㄷ. 독일월드컵 개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 ㄹ. 유엔의 대북제재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의 상태가 급박하고 임박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초읽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초읽기}가 바둑에서 사용된 단어라는 점을 본다면 여기에서 제시한 상황, 곧 '주전 경쟁'이나 '왕의 남자의 일정 관객 수 돌파', '독일 월드컵 개막', '대북 제재' 등은 모두 '초를 읽을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만큼 사건이나 현상의 주요 시점이 임박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명사형 어휘에 나타난 극대화된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뉴스 텍스트에 나타난 명사형 어휘는 기본 의미에서 확대되어 하나의 현상이나 행위·대상을 구체화시키고, 이렇게 구체화된 현상이나 행위·대상에 대해 보도의 관점 혹은 논점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앞에서 살펴본 긍정이나 부정적 태도 나아가 극대화된 표현 등은 뉴스 텍스트의 객관성을 해치는 것이지만, 뉴스라는 것이 국민의 기본 정서와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다면, 뉴스 텍스트에서 전달하는 의미와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정서와 뉴스의 관점을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V. 분석 결과

지금까지 뉴스 텍스트에 나타난 명사형 어휘의 유형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뉴스 텍스트에 나타난 명사형 어휘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뉴스에 나타난 명사형 어휘의 유형〉

유형	예
V+(-기)	{가로채기}, {굳히기}, {끝내기}, {뒤집기}, {버티기}, {흔들기} 등
V+(V+(-기))	{끌어들이기}, {끼워넣기}, {나뉘먹기}, {둘러막기}, {몰아주기}, {몰아치기}, {밀어붙이기}, {바꿔쓰기}, {바꿔치기}, {업어치기}, {짜맞추기}, {퍼나르기}, {퍼주기} 등
N+(V+(-기))	{{값/ 내신/ 성적/ 의혹}+{부풀리기}}, {{틀/ 판}+{짜기}}, {{체력/ 몸/ 근육}+{만들기}}, {{판/ 미국}+{흔들기}}, {{예술 분야/ 경제/ 아이들/ 불씨}+{살리기}}, {{민주당/ 지방/ 야당인사}+{죽이기}}, {{물}+{타기}}, {{승수/ 명분/ 점수/ 경력}+{쌓기}}, {{말}+{맞추기/ 바꾸기}}, {{줄}+{서기/ 세우기/ 타기}}, {{값}+{부풀리기/ 올리기}}, {먼지-떨기}, {수순-밝기}, {숨-고르기}, {시간-벌기}, {초-읽기}, {측근-빼주기}, {표심-잡기}, {흙집-내기} 등
Ad +(V+(-기))	{홀로-서기}, {뺑-튀기} 등

한편 이러한 명사형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뉴스에 나타난 명사형 어휘의 의미〉

의미	예
긍정적 의미	{끝내기}, {{체력/ 몸/ 근육}+{만들기}}, {표심잡기}
부정적 의미	{먼지떨기}, {업어치기}, {퍼주기}, {울며 겨자먹기}, {수박 겉핥기}, {제석구 감싸기}, {제살 깎아먹기}, {{미국/ 판}+{흔들기}}
도덕적 의미	{끼워넣기}, {나뉘먹기}, {둘러막기}, {몰아주기}, {물타기}, {바꿔쓰기}, {바꿔치기}, {버티기}, {뺑튀기}, {짜맞추기}, {퍼나르기}, {흙집내기}, {{값/ 내신/ 성적/ 의혹}+{부풀리기}}, {{말}+{맞추기/ 바꾸기}}, {{줄}+{서기/ 세우기/ 타기}}, {{값}+{올리기/ 부풀리기}},
극대화된 의미	{예술 분야/ 경제/ 아이들/ 불씨}+{살리기}, {초읽기}, {{민주당/ 지방/ 야당인사/ 화물연대}+{죽이기}},
중립적 의미	{굳히기}, {끌어들이기}, {당지키기}, {뒤집기}, {몰아치기}, {홀로서기}, {{틀/ 판}+{짜기}}, {{명분/ 수순/ 승수/ 점수}+{쌓기}}

뉴스 텍스트에서는 비일상적인 표현으로 특히 명사화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명사화가 반복되어 명사로 굳어진 형식이 역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언어 형식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나 현상을 구체화하고 공론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곧 '당선을 굳히기 위한 전략과 같은 표현이 아닌 '굳히기 전략'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굳히기}를 하나의 일반화된 행위 혹은 현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뉴스 텍스트에서는 명사로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행위나 과정을 구체화하고 하나의 대상으로 명사화하기 위해서 동사의 명사형 어휘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렇게 명사형 어휘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일반화된 현상은, 뉴스의 맥락을 통해서 그것이 갖는 사회·문화적 의미나 가치를 전달한다. 이는 명사형 어휘 자체가 일상적인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처럼 뉴스 텍스트에서 전달하는 의미 역시 보도자의 관점이나 태도, 혹은 사회적 인식이나 국민 정서에 기반한 의미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에서 확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눠먹기}나 {버티기}와 같은 표현은 단어 자체로는 긍정적인 의미도 부정적인 의미도 갖지 않는다. {버티기}의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에도 견디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뉴스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나눠먹기}나 {버티기}는 사회적으로 비도덕적인 것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를 전달하는 보도문의 태도 역시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를 보면 실제로 많은 명사형 어휘 항목이 부정적인 의미와 비도덕적인 의미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뉴스 텍스트에서 명사형 어휘는 단순히 구문이나 동사를 명사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나 행위를 명시적으

로 기술하기 위한 하나의 단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동사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어휘화하는 생산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각 단어 역시 뉴스 텍스트 속에서 다양하게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문헌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권순희(2002), 「텔레비전 뉴스의 표현 분석과 국어교육」, 『어문연구』116,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김병홍(2004), 「텔레비전 정치 뉴스 텍스트의 의도성 분석」, 『한글』264, 한글학회.
- 김정자(2001), 「텔레비전 뉴스의 비판적 시청과 국어교육적 함의」, 『국어교육연구』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민현식(1999), 「방송언어론」, 『화법연구』1, 한국화법학회.
- 박갑수(1996), 『한국방송언어론』, 집문당.
- 신현숙(1991), 『한국어 현상-의미 분석』, 상명여자대학교 출판부.
- 신현숙·박건숙(2001),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어휘 정보: {사람(들)}」, 『한국어교육』 1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심재기(1980), 「명사화(名詞化)의 의미기능」, 『언어』5-1, 한국언어학회.
- 왕문용·민현식(1993), 『국어 문법론의 이해』, 개문사.
- 이흥식(2005), 「텔레비전 방송 보도문의 언어 표현-기자 리포트를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19, 텍스트언어학회.
- 임태섭(2001), 「미디어 언어 비평-주요 일간지에 사용된 문제 보도언어 분석」, 『한국커뮤니케이션학』8,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 본 논문은 2007. 10. 28 투고되었으며, 2007. 11. 10. 심사가 시작되어 2007. 11. 28. 심사가 완료되었음.

- 정주리(1995), 「'-음', '-기'의 의미 특성과 분포 제약」, 『우산 이인석 교수 화갑 기념논문집』, 우산 이인석교수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 채 완(1979), 「명사화소(名詞化素) '-기'에 대하여」, 『국어학』8, 국어학회.
- 홍종선(1983), 「명사화 어미 '-음'과 '-기」, 『언어』8-2, 한국언어학회.

Aitchison, Jean(1987), *WORDS in the MIND*, Basil Blackwell.

Frawley, William(1992), *Linguistic Semantic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Miller, George A.(1991), *The Science of Words*, American Library.

Saeed, John I.(1997), *Semantics*, Blackwell Publishers.

Shin, Hyon-Sook & Lee, Jee-Young(1998), "A Cognitive Model of Semantic Extensions in Korean Spatial Terms: Focus on Two Vertical Terms", *Discourse and Cognition*, Vol. 52, *The Discourse and Cognitive Linguistics Society of Korea*.

Shin, Hyon-Sook(1993), "Touch as a Metaphoric Source of Supply: The Case of tay-ta in Korean", *Linguistic Journal of Korean*, Vol. 18, No. 1,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

■ 국문초록

뉴스 텍스트에 나타난 명사형 어휘 연구

- 명사화 어미 {-기}를 중심으로 -

신현숙 · 박건숙

이 연구는 뉴스 텍스트에 나타난 명사형 어휘 중에서 명사화 어미 {-기}를 대상으로 그 유형과 의미를 분석하여, 명사형 어휘가 사회적 현상과 경향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동사나 구문의 명사화는 뉴스의 내용을 압축적이고 축약적으로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뉴스 텍스트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뉴스 텍스트를 살펴보면 명사화 표현이 하나의 어휘 항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명사화 어미 {-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나 과정을 일반화하고 하나의 현상으로 규정짓는 것으로, 동사의 명사형, 명사나 부사가 결합한 명사형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명사형 어휘의 의미는 단어 자체의 의미보다는 각 단어가 쓰인 문장 속에서 맥락적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보도자의 태도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의미나 부정적인 의미, 도덕적 기준에 따른 도덕적 의미나 지나치게 과장하고 강조한 극대화된 의미 등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서 뉴스 텍스트에서 명사형 어휘는 단순히 구문이나 동사를 명사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나 행위를 명시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하나의 어휘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동사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어휘화하는 생산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단어의 의미 역시 보도자의 관점이나 태도, 사회적 인식 등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제어] 명사화, 명사화 표현, 어휘화, 의미자질, 뉴스 텍스트, 방송 언어

■ Abstract

The Study of Nominalized Forms through News Texts

– Focused on the Korean Nominalizational Ending {-ki} –

Shin, Hyon-sook · Park, Keon-sook

The goal of the present paper is to contribute to the collection of descriptive the types and meanings of nominalized forms. To undertake this stud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Korean Broadcasting System News 9' for the one years.

Our study begins with classification nominalized forms that appeared the nominalized verbs and the nominalization constructions, according to internal syntactic structure. We then analyzed semantic feature into [positive], [negative], [morality] and [exaggeration] on usage examples. In relation to semantic features we discuss usage of nominalized forms, social and culture context, and meaning based on the moral. We conclude that the meaning based on social and culture context, [positive/ negative] and [morality/ immorality], make understanding the viewpoints of current topics. In conclusion I present the results of my research.

[Key Words] Nominalization, Nominalized Forms, Lexicalization, Semantic Features, News Text, Broadcasting Language